

## \*\*마리오 보타의 주택 특성에 관한 고찰

### An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ojects by Mario Botta

김용립\* / Kim, Yong-Rhi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Mario Botta's single-family houses. Eight of his housing projects, which are deemed important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ousing, have been selected for the purpose and their elevations, plans, loggie and interiors are analyzed and evaluated.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realized ;

- ① The rationality of his interior space comes from Le Corbusier's housing projects.
- ② His expression of elevations has developed from Louis I. Kahn's language and Carlo Scarpa's technique.
- ③ The rationality of Corbusier's houses and expressiveness of Kahn's and Scarpa's projects together led to his functional solution of internal program and the creative external images of his own.
- ④ The originality of his houses results from his creative vision and ability to reinterpret the existing expression and principles in the light of time and space.

키워드 : 작가, 주택

## 1. 서론

스스로를 '모던 아키텍트'<sup>1)</sup>라 생각한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다른 모더니즘 작가와는 구별되는 독창성있는 주택작품을 발표해 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더니즘의 합리적 접근방식을 존중하였지만 구조적 표현에 치중한 나머지 개성을 갖지 못하며 주변환경과도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던 건축의 표현성은 극복하고자 하였다. 내부를 파고드는 로지아에 의해 조각되어지며 개구부의 상세한 표현과 치장 쌓기 벽돌벽에 의해 장식되어지는 단순한 기하학적 불륨의 보타 주택은 차가운 흰 벽과 커다란 유리면에 의해 둘러지는 이제까지의 모더니즘 작가의 주택과는 달리 '주변환경과 대화'<sup>2)</sup>하며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드러낸다.

보타의 주택에서 평면계획의 합리성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영향으로부터, 입면의 표현성은 루이스 칸(Louis I. Kahn)과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끌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초기의 작품, 스타비오 주택(1965)과 카테나쥬 주택(1970)은 보타 주택의 내부와 외관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작품이 되는데 보타는 스타비오 주택 설계를 통하여 꼬르뷔제의 평면구성 원칙을, 카테나쥬 주택 설계를 통하여 칸의 입면구성 방식을 실습하였다. 보타는 세 사람의 스승으로부터 이어받은 사상과 설계원칙을 토대로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요구에 충실하며 외부적으로는 독특한 형태로 주변과 관계맺는 그만의 고유한 주택을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의 목표는 마리오 보타 주택의 특성과 설계원칙을 고찰하는 데 두어졌다. 아울러 독특한 외관과 실내로 특징지어지는 보타 주택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새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표에 맞추어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8작품의 주택이 선정되었으며 8작품의 주택은 입면구성, 평면구성, 로지아, 실내공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다.

## 2. 건축수업과 설계원칙

1) Futagawa, Yukio Ed.,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yo : A.D.A. Edita, 1984), p.11.

2) Ibid., p.8.

\* 정회원, 상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 본 연구논문은 '98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2.1 건축수업

마리오 보타는 1943년 4월 1일 스위스의 남부, 티치노주 멘드리시오에서 태어났다.<sup>3)</sup> 이탈리아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티치노주는 지형적으로는 알프스의 산세가 약해지며 롬바르디아 평원이 펼쳐지는 곳으로 산과 호수의 경관이 빼어난 지방이며 건축적으로는 돌로 축조된, 지붕의 물매가 완만한 이탈리아 풍의 주택과 나무로 지어진, 지붕의 물매가 급한 독일식 주택이 함께 보여지는 지방이기도 하다.<sup>4)</sup> 티치노의 향토적 주택은 대체로 '대칭적 성향을 갖는, 단순하며 똑바로 선 건물'<sup>5)</sup>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평탄한 지역에 지어진 주택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반복되는 아케이트와 로지아'<sup>6)</sup>는 이탈리아식 주택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티치노 지방의 향토적 주택에서 찾아지는 이와 같은 특성은 '재해석'<sup>7)</sup>의 과정을 거쳐 보타의 주택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보타의 최초 건축수업은 15세 되던 해 티타 칼로니(Tita Caloni)와 루이지 카메니쉬(Luigi Camenish)의 건축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시작되었다. 칼로니와 카메니쉬는 당시 티치노를 대표할 만한 건축가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 보타는 몇몇 작품의 설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때 보타에 의해 해결된 설계안 중 모르비오 슈페리오레의 주택계획안과 산 헤르모의 교회 계획안에서는 그 시대를 풍미하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영향이 보여지기도 한다.<sup>8)</sup>

이탈리아에서의 건축수업은 티치노의 향토적 건축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 베니스 건축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보타는 줄리안 드 라 펜트(Julian de la Fuente)와 조세 오브레리(José Oubrière)의 감독 아래 꼬르뷔제의 베니스 병원계획에 참여하게 되며 이어 파리에 있는 꼬르뷔제의 스튜디오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다. 꼬르뷔제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동안 보타는 근대건축의 거장의 합리적 사고와 설계원칙, 건축언어를 배우게 되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비오 주택을 설계하게 된다.<sup>9)</sup> 스타비오 주택은 평면의 구성에서 층별 공간의 배치, 외관의 표현까지 꼬르뷔제의 해결방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특히 평면구성의 원칙은 보타의 주택 발전과정에서 내부공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때대가 되었다.

베니스 건축대학에서 졸업설계 과정에 들어간 보타는 창의적인 눈을 뜨게 하여준 두 사람의 스승, 카를로 스카르파와 루이스 칸을 만나게 된다. 졸업설계의 지도교수였던 스카르파와 베니스 회의장의 전시를 도우며 만나게 된 칸은 추구하는 목표와 작업방식은 달랐으나 유리상자 모양으로 획일화된 모던 건축의 표현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새로운 표현을 찾아 노력'<sup>10)</sup>하는 작가였다. 칸이 단순한 기

하학적 형태의 개구부와 콘크리트 보로 보강된 커다란 아치를 활용하는 독특한 언어를 발전시킨 것과 비교하여 스카르파는 외벽의 각기 다른 '부분'<sup>11)</sup>을 상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변화와 흥미를 갖게 하는 독자적인 표현을 발전시켰는데 두 스승의 표현방식은 보타에게 결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표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2.2 사상과 설계원칙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티치노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것과 동화되어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게 하는 향토적 건축물, 꼬르뷔제의 작품으로부터 이끌어낸 합리적인 설계원칙과 스카르파와 칸으로부터 받은 표현에 관한 가르침은 보타의 건축적 사고를 키워낸 밑거름이 되었다. 보타의 건축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건물이 서게 될 장소와 지역주민과 관계된 것으로 '사회적 관심'<sup>12)</sup>에 부응하는 것이며 그 둘째는 건축물의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실히 해결해 주는 것이다. 보타는 다른 모더니즘 작가와는 달리 건축물의 기능과 함께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주변환경과 대화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였으며 그의 건축이 주민들에게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를 이해시켜 주고 '방향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sup>13)</sup>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였다. 보타의 작품을 살펴보면 도시적 문제나 외관의 형태가 기능적 해결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기능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는다. 보타의 주택은 외관의 표현성 못지 않게 내부의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다.

정육면체나 원통과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볼륨은 모호함이 없는 명확한 형태로 인해 누구에게나 쉽게 인식된다. 쉽게 눈에 띄이며 인상깊게 인식되는 건축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보타는 주택의 기본형으로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을 채택하였다. 그의 주택에서 단순한 형태의 볼륨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다양한 모양으로 깎아내어 조각과도 같은 조형성을 부여받게 된다. 간결한 형태를 깎아내어 조형적 변화를 가하는 주요수단으로 흔히 로지아와 다양한 형태의 개구부가 활용되는데 로지아는 주택의 내부를 깊숙히 침투하여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3차원적 '깊이'<sup>14)</sup>를 느끼게 하며 커다란 원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절삭되어지는 개구부는 벽돌의 두께를 드러내며 입면에 표정을 준다. 두터운 벽돌벽을 오려내는 원과 사각형 개구부의 표현이 칸으로부터의 교훈을 반영한다면 입면의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각기 다른 부분들의 상세한 표현은 스카르파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 강한 무게감을 주는 보타의 입면은 대칭적 구성을 보이게 되는데 좁고 긴 수직의 틈과 그 끝에 달린 사각형 창,<sup>15)</sup> 반복되는 작은 정사각형 개구부, 빗물 개구부의 상세한 처리는 다양한 기교가 적용된 벽돌벽의 상세한 표현과 함께 대칭적 구성의 단조로움을 보완해 준다.<sup>16)</sup>

3) A+U, Mario Botta, 편집부 편역, (서울: 집문사, 1997), p.8.

4) Futagawa, Op. cit., p.10.

5) Loc. cit.

6) Loc. cit.

7) Ibid., pp.8-10.

8)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흥기 역, (서울: 기분당, 1992), p.27.

9) Ibid., pp.33-35.

10) Futagawa, Op. cit., p.20.

11) A+U, Carlo Scarpa, 장성수 역, (서울: 태림문화사, 1988), p.208.

12) GA House, Vol.3, p.73.

13) Futagawa, Op. cit., p.8.

14) Dal Co, Op. cit., p.11.

15) Loc. cit.

16) Futagawa, Op. cit., p.13.

모타 주택의 평면을 지배하고 있는 구성원칙은 대부분 코르뷔제의 주택작품에서부터 수집된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건축의 5형식' 중 '자유로운 평면'은 초기의 주택에서부터 근래에 지어진 주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시트르오안형 주택'을 특징짓는 상부로 트여진 거실이라든지 측면 공간배치의 원칙 또한 유사하게 적용된다. 비록 코르뷔제 주택의 구성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모타 주택의 평면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의 차이에서 온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코르뷔제 주택에서 발견된 구성원칙은 벽돌벽 구조의 모타 건축에 적용되며 새로운 차이를 낳게 된다. 모타 주택의 평면에서 찾아지는 또 다른 모더니즘의 특성은 '유동하는' 실내이다. 모타 주택에서 실내공간은 프랭크 로이드 Рай트나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의 주택에서 그것과 같이 같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유동하고 있다. 모더니즘의 합리적 방식을 따르는 모타 주택의 평면은 화려하게 장식된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공간의 쓰임에 맞도록 기능적으로 해결되어 있다.

조형적 측면에서나 구성적 측면에서, 전망과 자연광의 유입의 관점에서 로지아는 모타의 주택을 특징짓는 대표적 요소가 된다. 주택의 단순한 기하학적 볼륨은 로지아의 절사를 통해 3차원적 깊이를 갖게 되며 강한 느낌을 주는 입면이나 합리적으로 분할된 평면은 로지아를 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벽에 의해 둘러진, 디자인된 외부공간으로서의 로지아는 외부의 자연경관과 자연광을 실내에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되며 완전한 외부공간과 실내공간 사이에서 전이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모타의 주택이 발전되면서 로지아는 주택의 정면 중앙부를 수직으로 침식하며 상부에는 전망을 갖게 되는데 이때의 실내는 로지아를 통해 다양한 각도로 일광을 받아들여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타는 로지아를 창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승들의 작품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주택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었다.

자유롭게 유동하는 모타 주택의 실내는 층의 구분을 통해, 사이 사이에 계획된 계단이나 트여 있는 공간에 의해, 요소요소에 배치된 고정식 가구에 의해 독립성을 부여받게 된다. 실내공간은 또한 복잡한 단면계획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변화있는 실내가 되며 특별한 마감재의 사용없이 하얗게 칠하여져 검소하고 단정한 실내가 된다. 칸과 스카르포로부터 빛의 디자인을 배운 모타는 실내공간에 계획된 일광만을 허용하였는데 하얗게 칠하여진 벽과 천장은 다양한 각도로 유입되는 빛을 반사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의 주택에서 벽난로나 계단의 난간, 통로의 끝에 두어진 독립된 벽은 실내공간에 형태를 주는 조형물로 활용된다.

### 3. 주택작품 분석

#### 3.1 스타비오 주택

17) 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ls. 1권 코르뷔제에 작품연구회 번역, (서울: 집문사, 1991), Vol. 1, p.125.

18) Loc. cit.

19) *Architectural Monographs 8, Mies van der Rohe*, 이 민 역, (서울: 공간도서, 1989),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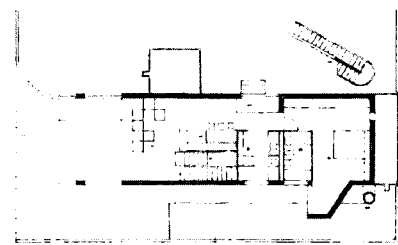
1935년 설계된 스타비오 주택에서는 평면구성을 비롯하여 입면의 표현과 계단이나 문턱과 같은 구성요소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코르뷔제의 영향이 강하게 보여진다. 모타는 코르뷔제로부터 받은 교훈을 실제에 옮기고자 노력하였다. 스타비오 주택은 바로 모타의 주택이 코르뷔제의 영향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입증하는 예가 된다.

#### (1) 평면구성

스타비오 주택은 코르뷔제에 의해 설계된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스킵 플로어형 단위체대를 인장케 한다. 모타는 좁고 긴 직사각형의 평면형태 뿐 아니라 평면의 중앙에 부엌을 두고 거실과 주인침실을 분리하는 방식, 좁은 평면을 다시 길이로 분할하여 두 개의 이동침실로 사용하는 방식, 거실의 일부를 2층 높이로 계획하는 방식 등 평면구성에서도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스킵 플로어형 단위체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코르뷔제로부터의 영향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측면 시설의 배치와 구성요소의 사용에서도 보여진다. 내벽벽에 의해 둘러져 비워진 1층 일부를 차고로 사용한다는지 1층에는 입주나 서비스 공간만을 두는 것, 캔틸레버 돌출계단이나 문턱을 독립적인 형태요소로 활용하는 방식은 코르뷔제의 주택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코르뷔제 작품과의 차이는 3층에 배치된 아동실의 위치와 주인침실의 사다리꼴 채광장에서 보여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실내에 보다 좋은 빛을 제공하고자 한 모타의 의지를 반영한다.

#### (2) 외관, 입면구성

코르뷔제의 영향은 스타비오 주택의 입면에서도 살아난다. 스타비오 주택의 거친 콘크리트 표면과 캔틸레버 돌출계단은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표면과 계단을 닮아 마치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축소모형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면에서와 같이 채광수단은 스타비오 주택이 모타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알리는 단서가 되는데 주인침실의 측면과 지방에서 사다리꼴로 돌출한 창은 침실에 자연광을 공급할 뿐 아니라 주택의 외관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서 쓰이게 된다.



도면 1 스타비오 주택(1965), 2층 평면도



사진 1 스타비오 주택(1965), 외관

### (3) 실내, 세부공간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단위세대 구성을 답습하고 있는 스타비오 주택에서 실내 세부공간의 이렇다할 특성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타는 꼬르뷔제의 교훈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에서 밤과 낮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며 빛과 전망, 설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비롯, 꼬르뷔제의 합리적 사고를 배우게 되며 이같은 교훈을 토대로 기능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주택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 3.2 카데나쥬 주택

베니스 건축학교를 졸업한 후 1970년에 계획한 카데나쥬 주택의 입면은 루이스 칸의 건축언어로 채워져 있다. 이 주택은 스타비오 주택을 지배했던 꼬르뷔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벗어나 칸의 가르침을 반영, 주택설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칸의 언어를 적용한 입면구성과 실내와 외부자연을 연결하는 '매개공간'<sup>20)</sup>으로 로지아의 활용이 시도된 작품이다.

### (1) 외관, 입면구성

카데나쥬 주택의 좁고 긴 직육면체 볼륨은 스타비오 주택의 그것과 유사하나 계단이나 굴뚝, 돌출된 창과 같이 덧붙여진 요소가 제거된 채 비교적 순수한 육면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외관에 형태를 주는 방편으로 스타비오 주택에서 요소를 덧붙이는 기법이 사용되었다면 카데나쥬 주택에서는 육면체의 기본형을 깎아내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카데나쥬 주택에서 이같은 절삭의 기법은 남측과 북측 단부에 가하여 졌는데 절삭부는 로지아를 형성하게 되고 외관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육면체나 원기둥, 삼각기둥과 같은 기하학적 볼륨을 깎아내어 조형적 변화를 구하는 방식은 카데나쥬 주택 이후 보타의 작품을 특징짓는 하나의 원칙이 된다.

거친 콘크리트 블록벽을 오려낸 네개의 원형 개구부와 그 개구부를 수평과 수직으로 분할하는 슬라브나 기둥과 같은 구조요소는 칸의 표현방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21)</sup> 비록 형태의 표현방식에서 칸의 것을 차용하고 있으나 입면에서 개구부의 위치는 보타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북측과 남측의 원형 개구부는 각각 넓게 펼쳐진 평야와 뒷산의 풍경에 맞추어져 있다. 보타는 입면을 계획할 때 가려져야 할 곳과 보여져야 할 곳을 명확히 구분하였는데 주택의 동측과 서측면에는 정리되지 않은 전망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블록과 유리 블록이 사용되었다. 뜨거운 서양벌을 여과하여 부드러운 일광만을 실내에 전하도록 의도된 서측 벽의 유리 블록은 슬라브와 기둥이 만드는 커다란 격자틀 안에 작은 정사각형 패턴을 형성하여 규칙적인 운율을 생성한다.

### (2) 평면구성

카데나쥬 주택의 평면은 공간분할과 구성의 측면에서 스타비오 주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양측 단부를 파고든 외부공간에 의해 변화를 입는 단순한 직사각형 평면은 먼저 길이방향으로 난 통로에 의해 동측 생활공간영역과 서측 보조공간영역으로 구분되어

지며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기둥을 단위로 정해진 크기의 반듯한 사각형 공간으로 분할된다. 구조요소를 단위로 작게 분할된 서측의 보조공간영역에는 계단실과 작은 공부방, 욕실 등이 두어지는 반면 생활공간영역에는 1층에 거실과 식사실, 2층에 스튜디오, 3층에는 침실이 배치되어 있다. 양측을 파고든 외부공간은 높고 낮은 로지아를 형성, 입구나 테라스로 쓰이게 되는데 침실과 스튜디오, 거실 등 주요공간은 로지아를 통해 외부자연과 시각적 관계를 맺는다. 카데나쥬 주택의 평면은 구조요소를 기준으로 한 반듯한 사각형 공간분할과 밤과 낮의 공간의 명확한 구분, 동선과 설비를 고려한 세부공간의 배치에서 모더니즘 주택의 합리성을 본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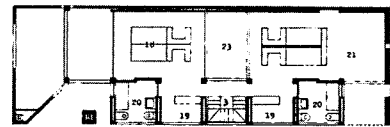
### (3) 로지아

꼬르뷔제의 주택이나 티치노의 향토적 주택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는 보타 주택의 로지아는 이전의 로지아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꼬르뷔제 주택의 로지아가 흔히 단순한 입면에 변화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면 카데나쥬 주택의 로지아는 주택을 파고들어 공간적 변화를 유발하는 조형요소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하학적 입방체에 형태적 변화를 가하는 수단으로서의 로지아는 또한 벽에 의해 축조된 외부공간으로서, 외부 시선으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해 주며 외부의 자연경관과 일광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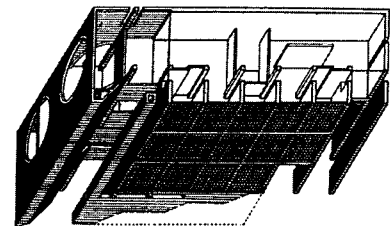
### (4) 실내, 세부공간

로지아의 활용으로 실내의 주요공간은 시각적으로 적절히 보호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전망과 일광을 얻고 있다. 간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하는 실내공간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 계획된 계단이나 트여진 공간에 의해, 적소에 배치된 고정식 가구에 의해 시각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실내 세부공간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① 계단 : 보조공간영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실내 각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함. 유리 블록벽을 통과한 일광을 통로에 전달.
- ② 주인침실 : 그림자에 의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로지아를 통해 넓게 트인 전망과 자연광을 받아들임. 트여진 공간을 사이에 두고 아동침실과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 ③ 거실 : 2층 높이로 트여 있음.



<도면 2> 카데나쥬 주택, 3층 평면도



<도면 3> 카데나쥬 주택, 액소노메트릭

20) Dal Co, Op. cit., p.15, p.42, p.92.

21) Futagawa, Op. cit., p.13.

### 3.3 리바 산 비탈레 주택

경사진 대지에 최소의 지면만을 점유하는 주택을 세우고자 한 보타의 생각은 정사각형 평면을 갖는 콘크리트 블록의 5층 '탑'으로 완성되었다.<sup>22)</sup> 높은 산과 수목을 배경으로 호수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의지듯 서 있는 리바 산 비탈레 주택(1971)은 주변환경과 대화하는 보타의 주택을 대표하며 후속되는 정사각형 평면의 주택과 수직비례 주택의 모델이 된다. 이 주택은 대지의 여건이나 브리지를 통해 최상층으로 진입하는 진입방식, 비례 등에서 비슷한 시기에 설계된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더글러스 주택과 닮아 있어 유럽과 미국의 현대건축을 선도하는 작가 사이에 주고 받은 영향을 알 수 있게 한다.

#### (1) 외관, 입면구성

외관상 간결한 육면체 기둥으로 표현되는 리바 산 비탈레 주택은 남동측 모퉁이를 파고든 로지아와 북서측 모퉁이를 돌아나오는 좁고 높은 공간에 의해 조형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주택의 탑과 같은 비례는 호수면이 그리면 수평과, 콘크리트 블록의 회색은 수목의 녹색과 각각 대조되어 그림과 같은 자연 속에서 인공구조물로서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굴뚝을 시각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좁고 긴 틈과 로지아의 개구부는 주택의 수직성을 강조해 준다.

#### (2) 평면구성

중심을 갖는 정사각형 평면은 내부로 침투한 외부공간에 의해 그 정형의 형태가 깨어진다. 평면의 중앙에 계획된 계단실은 전체 평면을 작은 네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는데 남동측과 북서측 공간은 로지아와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되게 되며 남서측과 북동측 공간은 주요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보타가 계단을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에 주요생활공간을 배치함으로써 평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직방향으로 5개의 층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계단실이 수평방향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이 흥미있게 보여진다. 진입은 브리지를 통해 최상층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도되었다.

#### (3) 로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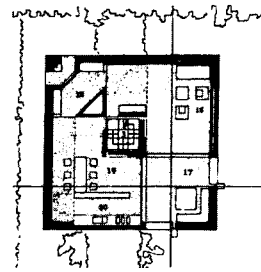
1층과 2층에서 주택의 남동측 공간을 차지하던 로지아는 3층과 4층에서 서측과 북측 방향으로 확장되어 층 높이를 달리하는 3개의 테라스를 형성한다. 리바 산 비탈레 주택의 로지아 역시 카테나조 주택에서와 같이 외부 시선으로부터 실내공간을 보호하며 선택된 풍경과 일광만을 실내에 전달해 준다.

#### (4) 실내, 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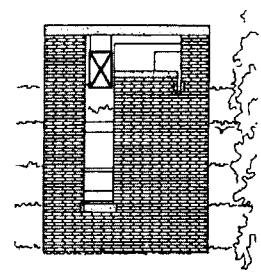
외형적으로 단순한 입방체로 보여지는 리바 산 비탈레 주택의 내부는 교묘하게 짜여진 단면계획에 의해 공간적 변화가 풍부한 실내가 된다.

- ① 계단실 :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공간으로의 진입이 쉬워짐. 공간분할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함.
- ② 주인침실 : 주택의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하며 거실과 로지아를 넘어 외부경관을 봄. 사적 테라스를 갖음.

③ 거실 : 층고가 두 번 변하며 3층 높이의 창을 통해 채광됨.



<도면 4> 리바 산 비탈레 주택, 1층 평면도



<도면 5> 리바 산 비탈레 주택, 동측 입면도

### 3.4 리골네토 주택

'주변 자연과의 대비로서 인공환경의 디자인'<sup>23)</sup>을 의도했던 리골네토 주택(1975)은 마을 안의 인공적 환경과 마을 밖의 자연적 환경의 '경계'<sup>24)</sup>로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과 관계를 맺는다. 보타는 스타비오 주택에서 사용했던 좁고 긴 육면체 볼륨을 선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리골네토 주택에서는 주택의 중심부를 깎아 형성한 로지아가 처음 선을 보이는데 건물의 중심을 파고든 로지아는 이후의 주택에서 보타 주택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발전되게 된다.

#### (1) 외관, 입면구성

중앙을 파고든 외부공간에 의해 두 개의 건물요소로 분할되는 긴 직육면체 볼륨은 외벽에 적용된 적색과 회색띠에 의해 그 수평성이 강조된다. 보타는 외벽에 적색과 회색의 벽돌 켜를 교차시킴으로써 주변환경과 대비적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경계벽'<sup>25)</sup>으로 의도된 북측입면의 절삭부가 좁고 긴 수직공간으로 표현된 것과 비교하여 마을을 보는 남측입면의 절삭부는 2층과 3층에서 수평으로 확장되어 주택에 독특한 표정을 주고 있다. 그밖에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마련된 정사각형과 원형의 창,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정사각 개구부, 좁고 긴 수직의 틈 또한 장식언어로서 주택의 표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준다.

#### (2) 평면구성

좁고 긴 직사각형 평면은 중앙부를 관통하는 로지아에 의해 허리가 잘리고 깎이어 동측과 서측부분으로 분할되며 형태적 변화를 입게 된다. 이전의 주택에서와 같이 1층에는 차고와 서비스 공간만이 배치되며 주요생활공간은 2층과 3층에 계획되었다. 주택의 서측부에는 거실과 서재가, 동측부에는 아동침실과 주인침실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 공간은 전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유동하고 있다. 좁고 긴 평면을 다시 길이로 나누어 두 개의 침실로 사용하며, 중앙에 배치된 서비스 공간을 이용하여 침실과 거실을 분리시킨 2층 평면은 다시금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스킵 플로어형 단위세대를 회상하게 한다.

23)GA House, Vol.3, p.63.

24)Dal Co, Op. cit., p.70.

25)Ibid., p.64.

22) 'A+U, Mario Botta', Op. cit.,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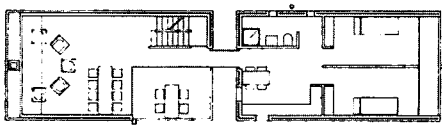
(3) 로지아

리콜네토 주택의 로지아는 비레가 비슷한 주택, 카테나쵸 주택의 로지아와 비교된다. 리콜네토 주택의 로지아는 건물의 양측 단부에 두어지며 실내 주요공간에 전망과 일광을 전달해 주는 카테나쵸 주택의 로지아와는 달리 건물의 중심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내의 주요생활공간에 전망을 배제한 채 일광만을 전달해 주고 있다. 남측면, 2층과 3층에서 좌우로 확장된 로지아는 거실과 주인침실에 테라스를 마련해 주는데 외벽에 의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숨겨진 거실과 주인침실은 테라스를 통해 남측의 일광을 받아들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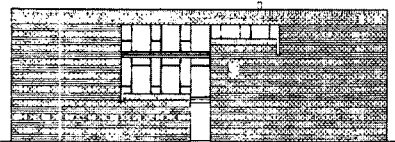
(4) 실내, 세부공간

특별한 장식이나 마감재의 사용없이 하얗게 칠하여진 실내는 검소하고 단정한 실내가 된다. 콘크리트 벽돌로 둘러진 실내에서 낮은 천장과 제한된 자연광은 어두우면서도 포근한, '동굴'<sup>26)</sup> 속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한다. 다양한 모양으로 작게 혹은 좁게 절개된 개구부를 통해 유입되는 적은 양의 빛은 다소 어두운 실내를 신비롭게 밝혀 준다. 아동실을 제외한 주요생활공간은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 ① 주인침실 : 외벽에 의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사적 테라스를 통해 남측의 일광을 받아들임.
- ② 아동침실 : 테라스를 통해 아침의 일광을 받아들임.
- ③ 서재 : 한 쌍의 좁고 긴 세로 창과 천창에 의해 채광되며 슬라브의 개구부를 통해 빛을 아래층 거실로 전달함.



<도면 6> 리콜네토 주택, 3층 평면도



<도면 7> 리콜네토 주택, 남측 입면도

3.5 프레가소나 주택

프레가소나 주택(1979)은 정사각형 모양의 평면형태에서 리바 산비탈레 주택의 형태를, 중심부를 깎아 형성한 로지아의 활용에서 리콜네토 주택의 수법을 각각 계승하고 있다. 보타는 이전의 주택에서 사용하였던 표현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여 형태적으로 발전된 새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주택의 3층 높이 정육면체 볼륨은 중앙의 로지아를 축으로 대칭이 강조된 독특한 이미지의 정면을 갖게 되는데 중앙 로지아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정면은 이후의 주택에도 이어져 보타의 주택을 특징짓게 된다.

(1) 외관, 입면구성

순수한 기하학적 입방체는 정면과 양측면을 침식한 외부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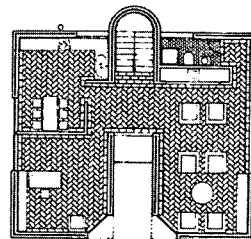
의해, 배면을 뚫고 돌출한 반원 원통형의 계단요소에 의해 조형적 형태를 부여받는다. 정면과 배면은 각각 로지아와 계단실을 축으로 완전한 대칭이 되는데 상층으로 올라가며 좁아지는 로지아의 개구부와 투명 유리면을 배경으로 둥근 형태를 드러내는 육중한 계단실은 대칭의 축이 될 뿐 아니라 주택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형태요소가 되기도 한다. 벽돌과 유리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과 개구부의 변화로운 형태는 대칭적 구성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며 입면을 활기있게 한다.

(2)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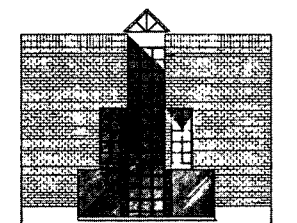
평면의 정사각형 형태는 층의 용도와 보타의 조형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깎아여 층마다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각층의 평면은 중앙 로지아와 계단실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의 평면에서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제1의 축 외에 양측면 절삭부를 연결하는 제2의 축이 발견되는데 제1의 축이 동서 방향으로 실내 주요공간을 구분짓는 것과 비교하여 제2의 축은 남북 방향으로 생활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구분짓는다. 1층에는 서비스 공간만을 두고 2층과 3층에 각각 낮은 공간과 밤의 공간을 두는 층별 공간배치는 이전의 주택과 같으며 서비스 공간을 북측 벽에 집중된 배치와 계단 홀 주위에 실을 배치하여 통로의 낭비를 줄인 배치는 보타의 합리적 사고를 반영한다. 평면에서 계단실의 돌출은 중앙 로지아의 깎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3) 로지아

주택의 정면과 양측면을 깎아 형성한 로지아는 입면과 평면구성의 축이 될 뿐 아니라 전체 주택계획의 핵심이 된다. 특히 콘크리트 벽돌벽을 좌우로 갈라 쪼개는 중앙 로지아는 대칭이 강조된 독특한 정면을 만들게 되는데 이같이 로지아의 절삭부를 축으로 대칭이 되는 정면은 프레가소나 주택 이후, 보타의 주택을 구분짓게 하는 하나의 주제로 자리잡게 된다. 상부에 천창을 갖는 중앙 로지아는 또한 빛의 통로가 되어 남측과 하늘 방향으로부터 유입되는 일광을 실내에 전달해 준다. 실내 주요생활공간은 로지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공간적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도면 8> 프레가소나 주택, 2층 평면도



<도면 9> 프레가소나 주택, 남측 입면도

(4) 실내, 세부공간

실내의 각실은 계단 홀 주위에 밀도있게 배치되어 있다. 주요생활공간은 주택의 중심을 향해 깊게 파고든 절삭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분할되어 있어 독립성이 강한 공간이 된다.

- ① 계단실 : 중심축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 계단참은 반원의 둥근 벽에 의해 둘러져 있음.

26)Futagawa, Op. cit., p.18.

2) 계단 홀 : 평면의 중앙부에 위치, 공간의 낭비없이 주변의 각실로의 접근을 쉽게 함. 각층의 계단은 남측, 3층 높이의 수직공간을 통해 단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로지아로부터 받아들인 일광을 계단실로 전달함.

3) 침실 : 두 개의 침실은 각각 삼각형으로 침식되어진 사석 테라스를 갖고 있음. 외부 시선으로부터 깊숙히 숨겨져 있으며 테라스를 통해 자연광을 받아들임.

### 3.6 마싸그노 주택

후면과 양측면이 경사진 대지에 묻혀 있는 마싸그노 주택(1979)에서 정면은 주택의 얼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게 된다. 마싸그노 주택의 구성은 로지아와 계단실을 축으로 대칭이 되는 프레가소나 주택의 구성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모서리로 진입하도록 의도된 입구와 커다란 원형 개구부의 표현에서는 칸의 언어가 보여지기도 한다.

#### (1) 외관, 입면구성

적육면체 볼륨의 넓은 면을 정면으로 하는 마싸그노 주택 정면에는 적색과 회색의 띠로 표현되었던 리콜네토 주택의 벽돌쌓기 기법이 재현되었다. 중앙의 커다란 원형 개구부 외에는 이렇다 할 3차원적 변화를 갖지 않는 평평한 정면은 회색과 적색의 '수평띠'를 비롯하여 벽돌과 창살이 보여주는 다양한 패턴과 콘크리트 구조의 상세한 표현에 의해 장식되어지며 주변의 자연을 배경으로 루가노시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화려하게 드러내고 있다. 보타는 이전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늘 새로운 생각을 더하여 사용하였는데 마싸그노 주택에서 적용된 벽돌 수평띠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두 컷의 회색 띠마다 한 컷의 적색 띠가 교대로 나타나며 적색의 띠에는 마구리쌓기가 적용된 마싸그노 주택의 수평띠는 리콜네토 주택 수평띠의 단순한 반복과는 달리 변화있는 리듬을 생성하게 된다. 적사각형 입면과 대비되는 원형 개구부는 적색 테두리에 의해 그 형태가 강조되며 대칭으로 뻗은 빗살 모양의 창살은 입면에 강한 운동감을 부여한다.

#### (2) 평면구성

마싸그노 주택의 평면은 정사각형 형태의 프레가소나 주택 평면이 적사각형 평면에 적용된 예로 볼 수 있다. 평면구성은 중앙의 축을 기준으로 실내 세부공간이 대칭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면 외벽에 서비스 공간을 집중시킨 것과 층별 주요생활공간의 배치까지 프레가소나 주택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주택의 뒷부분이 홀 속에 묻혀 있는 관계로 프레가소나 주택에서 보여졌던 제 2의 축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밖에 계단실의 형태와 입구의 위치에서 프레가소나 주택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일대 미술관의 계단을 연상시키는 원통형 계단실과 남동측 모서리로 진입하는 입구의 위치에서 칸의 영향이 보여진다. 실내 주요공간은 로지아에 의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교묘히 감추어져 있으며 또한 로지아를 통해 아래로 펼쳐지는 루가노시의 전경과 자연광을 취한다.

#### (3) 로지아

정면에서 커다란 원형 개구부로 통합된 마싸그노 주택의 로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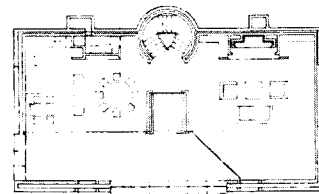
는 2층 바다 슬라브에 의해 1층부와 2, 3층부의 로지아로 분할되게 되는데 1층부의 로지아는 진입 통로로, 수직으로 트인 2, 3층부의 로지아는 내부의 생활공간과 외부의 자연경관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공간으로 의도되었다. 실내의 주요생활공간은 로지아를 통해 커다란 원형 개구부에 의해 조정된 루가노시와 푸른 호수, 산의 풍경을 보게 된다. 마싸그노 주택의 로지아는 커다란 유리창에 의해 단혀질 수 있게 계획되었으며 단혀질 경우 축소된 외부공간으로서의 로지아는 실내공간으로 편입되게 된다. 천장을 갖는 마싸그노 주택의 로지아 역시 프레가소나 주택의 로지아와 같이 다양한 각도로 유입되는 일광을 받아 실내공간에 연결시켜 준다.

#### (4) 실내, 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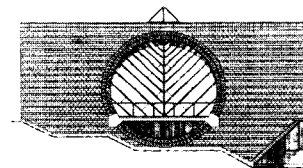
마싸그노 주택의 실내를 프레가소나 주택의 실내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큰 창을 갖는 로지아는 단혀질 때에 실내로 편입되게 되는데 단혀질 경우 사선의 창살 그림자는 태양의 움직임에 실내에 반영하여 변화와 활기를 주게 된다.

1) 계단실 : 원형의 둥근 벽에 의해 둘러지며 상부에 좁고 긴 천장을 갖고 있음.

2) 거실 : 세 컷의 아취 개구부를 갖는 커다란 벽난로는 형태요소로 시각적 중심이 될 뿐 아니라 가구배치의 배경이 됨.



도면 10 마싸그노 주택, 2층 평면도



도면 11 마싸그노 주택, 남측 입면도

### 3.7 스타비오 주택

규모와 비례, 구성기법의 관점에서 볼 때 원통형 볼륨의 주택, 스타비오 주택(1980)은 정육면체에서 원통형으로 형태를 갈아입은 프레가소나 주택이라 말할 수 있겠다.<sup>28)</sup> 사각 상자형태를 탈피한 원통형 볼륨과 투구를 쓴 기사의 모습과 같이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정면, 다양한 벽돌쌓기 기법으로 치장된 외벽 등은 단독주택에 대한 보타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어 보타를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1) 외관, 입면구성

폭과 높이가 같은 안정된 원통형 볼륨은 정면과 후면, 1층의 양측부를 침식한 외부공간에 의해 조형적 변화를 입게 되며 변화있는

27) Ibid., p.13.

28) GA House, Vol.10, p.22.

개구부의 형태, 표면의 다양한 패턴 등에 의해 표정을 얻게 된다. 외관의 구성은 프레가소나 주택에서와 같이 대칭의 원리를 따르며 대칭적 구성에서 오는 단조로움은 부분들의 상세한 표현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 스타비오 주택의 정면은 중앙 로지아에 의해 두 쪽으로 분할되는 프레가소나 주택의 정면과는 달리 세 쪽의 벽돌면으로 분할되게 되는데 프레가소나 주택의 정면에서는 솔리드 면과 보이드 부분의 교차가 한 차례 더 보여지게 된다. 좁고 긴 수직의 틈과 끝에 달린 사각 창, 원형 '기둥'과 같이 묘사된 계단실과 내어 쌓은 벽돌로 장식된 '주두', 세워쌓기와 빗겨쌓기 기법이 적용된 코니스 등 각각 다른 부분들의 상세한 표현은 입면의 표정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준다.<sup>29)</sup> 1층, 양측부를 관통하는 외부공간으로 인해 주택은 지면으로부터 들려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된다.

(2) 평면구성

원형과 정사각형은 형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강한 중심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계단실과 중앙 로지아를 축으로 대칭이 되는 배치를 비롯하여 1층에는 입구와 보조 공간만을 두며, 2층과 3층에 각각 낮의 공간과 밤의 공간을 두는 배치방식, 실내의 세부공간은 좁은 계단 홀에 의해 연결되며 간혀 있지 않고 유동하도록 한 원칙 등 정사각형 형태의 프레가소나 주택 평면을 지배하던 구성원칙은 스타비오 주택의 원형 평면에 그대로 대입되어 나타난다. 크게 프레가소나 주택의 구성원칙을 따르는 스타비오 주택은 주택의 정면을 파고든 공간, 절삭부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2층과 3층을 좁고 깊게 침식한 프레가소나 주택의 로지아와 비교하여 스타비오 주택의 절삭부는 2층에서는 얇고 넓게, 3층에서는 깊고 좁게 깎여져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2층, 낮의 공간은 넓게 트인 '하나의 공간'<sup>30)</sup>이 되는 반면 3층, 밤의 공간은 절삭부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독립적 공간이 된다. 독특한 형태와 표정으로 주의를 모으는 스타비오 주택은 합리적으로 계획된 평면에 힘입어 기능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주택이 되었다.

(3) 로지아

정면을 알개 침식한 로지아는 1층의 양측부를 관통하여 후면으로 이어진다. 스타비오 주택의 로지아는 1층과 2층에서 각각 포치와 테라스로 활용되는데 원통형 볼륨을 알개 깎아내어 확고한 측면을 갖지 못하는 정면의 로지아에서는 로지아 본래의 성격이 미약하게 나타난다. 포르투갈의 주택에서와 같이 1층의 로지아는 주택이 들려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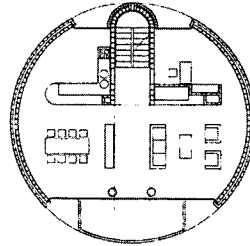
(4) 실내, 세부공간

조형의지와 층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는 평면은 실내를 공간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수평과 수직공간이 교차하는 활기있는 실내는 2층의 수평 창과 정면 중앙의 수직 창, 천장의 천창으로부터 일광과 전망을 공급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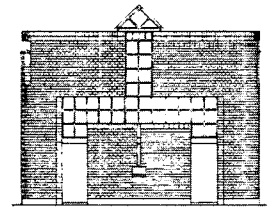
- ① 계단 홀 : 계단을 타고 2층과 3층에 오르면 계단 홀에서는 정면의 창과 천창을 통해 마을 풍경과 하늘을 볼 수 있음.
- ② 2층, 낮의 공간 : 수평과 수직공간의 교차가 극적으로 보여짐. 수

평과 수직, 하늘 방향으로부터 일광을 받는, 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됨.

- ③ 3층, 밤의 공간 : 자유롭게 유동하는 공간. 부부침실과 자녀의 침실은 수직으로 트인 공간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도면 12> 스타비오 주택(1980), 2층 평면도



<도면 13> 스타비오 주택(1980), 남측 입면도

3.8 다로 주택

경사진 대지의 향을 따라 북서측 계곡을 보도록 배치된 다로 주택(1989)은 선박의 머리 부분을 연상케 하는 오각 기둥의 볼륨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모양의 주택은 지하층에서 좁게 시작하여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며 수평으로 확장되는 중앙 로지아와 1층의 양측부를 깎은 절삭부에 의해 기념조각과도 같은 조형성을 부여받는다. 회교사원의 모자이크 벽을 보는 듯 한 치장벽돌의 섬세한 표현은 극에 이른 벽돌쌓기 기법을 보여 준다.

(1) 외관, 입면구성

비교적 간결한 기하학적 도형을 기본형으로 하던 보타의 주택은 다로 주택에서 다소 복잡하고 독특한 볼륨의 주택으로 발전되었다. 선박의 앞 부분을 절단해 놓은 듯 한 모양의 주택은 배의 머리부분을 배면으로, 절단부를 정면으로 취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경사진 대지에 묻혀 있는 배면이나 측면과 비교하여 정면을 드러내는 정면은 주택의 얼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주택의 정면은 함장한 손을 다시 하늘을 향해 벌린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마치 하늘을 향하여 어떠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듯 보이며 하늘로 열려진 부분은 활 모양의 트러스 천창으로 투명하게 덮혀 있다. 길이쌓기 커와 빗겨쌓기 커가 교대로 적용된 벽돌벽 표면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2) 평면구성

직사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을 합성한 모양의 오각형 평면은 두 요소가 만나는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어 선박의 머리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평면은 정면 절삭부와 계단을 연결하는 선을 축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절삭부는 지하층과 1층에서는 좁고 높은 입구로, 2층과 3층에서는 층이 진 테라스로 활용된다. 층별 공간의 배치는 1층에 침실을, 2층에 거실과 부엌, 식사공간을 두고 있는데 주택의 사용자는 동굴과 같은 입구를 통과한 후 지하통로와 계단을 지나 2층에 오르면 밝고 넓게 트인 낮의 공간에 도달할 수 있다. 낮의 공간층 중심에 두어진 식사공간은 2층 높이로 트여 있으며 유리면으로 둘러진 테라스와 계곡의 경관을 보도록 배치되었다.

29)Futagawa, Op. cit., p.15.

30)GA House, Vol.10, p.22.



## 4. 주택분석의 종합

〈표 1〉 보타 주택의 특성

주택명	항목	주택의 특성	주택명	항목	주택의 특성
스타비오 주택 (1965)	외관, 입면구성	·유니테 다비타시온의 스킵 플로어형 단위세대를 단독주택으로 전환. 긴 직육면체 볼륨에 옥외계단, 굴뚝, 채광창의 요소를 덧붙여 조형상 추구. ·거친 콘크리트 표면을 노출시킴.	프레가소나 주택	외관, 입면구성	·정육면체의 볼륨은 정면 중앙을 좁고 깊게 침식한 로지아와 배면을 뚫고 돌출한 동근 계단실에 의해 조형성을 부여받게 됨. ·상층부로 올라가며 단계적으로 좁아지는 로지아는 정면의 벽돌벽을 두 쪽으로 분할함. 정면과 배면은 완전한 대칭적 구성을 보임.
	평면구성	·유니테 다비타시온, 스킵 플로어 단위세대 평면을 차용한 구성. ·1층에는 입구와 계단, 서비스 공간 만을 둠.		평면구성	·정사각형 평면. 중앙 로지아와 계단실을 축으로 대칭적 구성을 보임. ·각 층의 평면은 조형의지에 따라, 수용공간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함. ·계단 홀을 평면의 중앙부에 두어 통로로 쓰이는 공간을 절약함. ·서비스 공간은 북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1층에는 입구와 서비스 공간만을 두며 2층에는 낮의 공간, 3층에는 밤의 공간을 배치함.
	실내 세부공간	·밤의 공간과 낮의 공간의 명확한 구분. 부분적으로 2층으로 트인 거실, 일광과 전망, 실비를 고려한 배치. ·고르뮈제의 합리적 사고를 실천.		로지아	·정면 중앙부를 좁고 높고 깊게 침식한 로지아는 정면의 벽돌벽을 두 쪽으로 나눌 뿐 아니라 실내공간을 동측과 서측으로 분할함. 입면과 평면구성에 대칭의 축이 됨. ·남측과 하늘 방향으로부터의 일광을 실내에 전달함. 로지아의 상부는 천창으로 처리됨.
카데나조 주택	외관, 입면구성	·긴 직육면체의 볼륨은 남측과 북측, 양측 단부를 파고든 로지아에 의해 조각되어짐. ·커다란 원형 개구부를 갖는 콘크리트 볼륨벽은 칸의 영향을 보여줌. ·서측 입면의 유리볼륨은 주택의 구조를 드러냄.	마싸그노 주택	실내 세부공간	·실내공간은 로지아에 의해 분할되며 로지아를 통해 일광을 받아들임. ·각층은 중심부에 위치한 좁고 높은 수직공간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
	평면구성	·로지아에 의해 깎여진 긴 직사각형 평면은 길이 방향으로 난 통로에 의해 동측 생활공간과 서측 보조공간 영역으로 구분됨.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기둥을 단위로 반듯한 사각형 공간으로 구분됨. ·긴 평면의 중앙에 위치한 계단은 각 공간으로 접근을 쉽게 함.		외관, 입면구성	·배면과 측면의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묻혀 있는 직육면체 볼륨의 주택은 정면 중앙부를 뚫은 커다란 원형 개구부에 의해 표정을 갖게 됨. ·정면을 치장하는 적색과 회색의 수평 벽돌대는 2개의 회색커와 1개의 적색커를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 ·원형 개구부의 창은 사선의 살로 분할되어 있음.
	로지아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에 형태적 변화를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외부시선으로부터 실내공간을 보호하며 선별된 전망을 실내로 전달함. ·외부의 자연공간과 실내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이 됨. ·디자인 된 외부공간으로 포치, 테라스로 활용됨.		평면구성	·직사각형 평면. 평면분할과 층별 공간배치의 원칙은 프레가소나 주택의 원칙을 따름. ·진입은 남동측 코너에 마련된 개구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계단실의 형태는 원형으로 바뀌었음.
리바산비탈레 주택	외관, 입면구성	·5층 높이의 정사각 기둥형 주택은 남동측 코너를 깎은 절사부에 의해 형태적 변화를 입게 됨. ·탑과 같은 비례의 주택은 벽체로부터 굴뚝을 독립시켜 주는 수직의 절사부와 로지아의 개구부에 의해 수직성이 강조됨.	스타비오 주택 (1980)	로지아	·2층 바닥 슬라브에 의해 1층 로지아와 2, 3층 로지아로 구분됨. 1층 로지아는 진입통로로 활용됨. ·원형의 개구부는 커다란 창에 의해 닫혀 질 수 있음. 디자인된 옥외공간, 로지아는 닫혀질 경우 실내공간으로 편입됨.
	평면구성	·정사각형 평면은 남동측 코너를 침투한 옥외공간에 의해 정형의 형태가 깨어짐. ·브리지지를 통해 최상층으로 진입. ·계단을 평면의 중심에 두어 공간을 분할하는 요소로 활용함.		실내 세부공간	·원통형의 계단실은 상부에 계획된 좁은 천창과 계단 홀 앞의 빛우물을 통해 채광되어짐.
	로지아	·1층과 2층에서 남동측 코너를 차지하던 로지아는 3층과 4층에서 서측과 북측으로 확장되어 높이를 달리하는 3개의 테라스를 형성함. ·선택된 전망과 함께 동측과 남측으로부터의 일광을 실내에 전달함.		외관, 입면구성	·원통 볼륨은 정면을 알개 침식한 후 1층의 양측부를 관통, 다시 배면을 깎아내는 외부공간에 의해 조형적 형태를 띠게 됨. ·정면 벽돌벽을 두쪽으로 가르는 보이드는 그것의 중심에 슬리트 면을 둠. ·좁고 긴 수직 슬리트와 끝에 달린 정사각형 개구부, 추대와 같이 장식된 계단실 상부, 코너를 독립시켜 주는 빗겨쌓은 벽돌 커 등의 세밀한 처리는 주택의 외관을 풍요롭게 함.
리골네토 주택	외관, 입면구성	·복잡한 단면계획에 의해 공간적 변화가 풍부한 실내가 됨. 거실은 수직적으로 2층 공부방 및 3층 주인침실과 연결되어 있음. ·커다란 유리벽을 갖는 주요공간은 로지아를 통해 외부의 진경과 일광을 받아들임.	다로 주택	평면구성	·원형 평면. 원형평면에는 정사각형 평면의 프레가소나 주택을 지배했던 구성 원칙이 대입되어 나타남. ·2층의 낮의 공간은 커다란 하나의 공간으로 의도됨. ·3층에서 좁고 긴 슬라브의 절사부는 주인침실과 아동침실을 구분하며 빛우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평면구성	·긴 직사각형 주택은 중앙부를 깎아 형성한 로지아에 의해 조각되어 형태를 부여받게 됨. ·3개마다 교차된 회색과 적색의 벽돌띠로 치장된 주택은 주변 환경과 대비되어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함.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정사각형 개구부, 정사각형 테두리 돌과 원형 창, 좁고 긴 수직의 틈 등의 섬세한 처리로 주택의 표정을 더욱 풍요롭게 함.		로지아	·원통형 주택의 정면을 알개 침식한 외부공간은 로지아의 성격은 약화시킴. ·1층 양측부를 관통한 로지아는 주택이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로지아	·긴 직사각형 평면. 긴 평면은 중앙부를 관통하는 외부공간에 의해 허리가 잘리어 동측과 서측영역으로 분리됨. 서측에는 낮의 공간을 동측에는 밤의 공간을 둠. ·남측의 로지아는 2층과 3층에서 서측과 동측으로 넓어져 테라스가 됨.		실내 세부공간	·2층 낮의 공간과 3층 밤의 공간은 슬라브의 절사부를 통해 수직으로 연결됨. ·하나의 공간으로 의도된 낮의 공간은 남측으로 난 수평과 수직의 창과 천창으로부터의 일광 받아들여 넓고 밝은 방이 됨.
리골네토 주택	외관, 입면구성	·건물의 중심부를 파고들어 실내를 분할함. 건물의 중심을 파고든 로지아는 이후의 주택에도 적용되어 보타의 주택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됨. ·중앙의 로지아는 거실과 주인 침실의 사적 테라스로 활용되며 남측으로부터의 일광을 거실과 주인침실에 전달함.	다로 주택	외관, 입면구성	·선박의 앞부분을 절단해 놓은 듯한 주택은 선박의 머리부분을 배면으로, 절단부를 정면으로 취함. 배면과 측면의 일부는 경사진 대지에 묻혀 있음. ·정면은 지하층에서 좁게 시작하여 2층과 3층에서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중앙 절사부에 의해 합장한 손을 하늘을 향해 벌린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됨. ·같이쌓기와 빗겨쌓기 커를 교차하여 쌓은 정면의 벽돌벽은 극에 달한 듯한 벽돌쌓기 기법을 보여줌.
	평면구성	·외부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거실과 서재, 주인침실은 테라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광을 받아들임. ·서재는 천창의 좁은 개구부를 통해 천창으로 유입된 일광을 받들임. ·원색으로 칠하여진 검소한 벽과 제한된 방향으로부터의 일광을 받아들이는 다소 어두운 실내는 중세 수도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함.		평면구성	·직사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합성한 오각형 모양의 평면은 두 형태요소가 만나는 부분이 곡선처리되어 선박의 머리부분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됨. ·2층의 중앙부를 파고든 테라스는 3층에서 좌우로 넓어져 양측으로 층이 진 테라스가 됨.
	로지아	·외부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거실과 서재, 주인침실은 테라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광을 받아들임. ·서재는 천창의 좁은 개구부를 통해 천창으로 유입된 일광을 받들임. ·원색으로 칠하여진 검소한 벽과 제한된 방향으로부터의 일광을 받아들이는 다소 어두운 실내는 중세 수도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함.		로지아	·정면 중앙부의 로지아는 1층에서 좁고 높은 입구를, 2층과 3층에서는 좌우로 높아지는 테라스를 형성함. ·하늘을 향해 넓게 열린 부분은 활 모양의 트러스 천창에 의해 덮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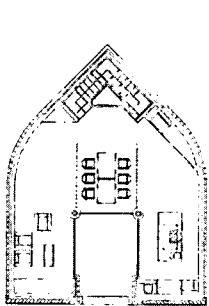
### (3) 로지아

지하층에서 동굴의 입구와 같은, 좁고 높은 입구를 만드는 로지아는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며 좌우대칭으로 확장되어 양측으로 높아진 층이 진 테라스로 발전된다. 2층에서 시작되어 3층에서 좌우로 확장된 테라스는 계곡을 따라 펼쳐지는 마을의 풍경을 보도록 계획되었는데 좁은 계곡을 향한 테라스는 커다란 유리면으로 덮혀져 하늘 방향으로 넓게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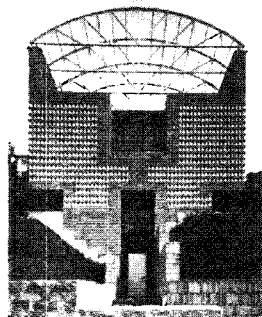
### (4) 실내, 세부공간

다로 주택의 실내는 복잡한 단면계획에 의해 공간적으로 변화가 풍부한 실내가 된다. 수평공간과 수직공간이 교차되는 실내 분위기는 스타비오 주택과 유사하며 자연광이 제한된 다소 어두운 밤의 공간과 빛으로 충만한 낮의 공간의 대비를 읽을 수 있다. 밤의 공간은 작게 나뉘어 있는 반면 낮의 공간은 넓게 트여져 있다.

- ① 계단 : 상부에 천장을 갖고 있으며 빛우물의 역할을 함. 난간을 만드는 철제 삼각형 고리는 조형물이 됨.
- ② 계단 홀 : 3층 계단 홀에서는 차례로 실내공간, 거실과 디자인된 외부공간, 테라스와 외부공간, 계곡의 풍경을 내려볼 수 있음.
- ③ 식사공간 : 낮의 공간 중심부에 위치하며 2층 높이로 트여 있음. 선택된 계곡의 풍경과 넓게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음.



〈도면 14〉 다로 주택, 2층 평면도



〈사진 2〉 다로 주택, 외관

로 카데나조 주택을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어진 긴 직육면체형의 카데나조 주택은 칸의 작품을 상기시키는 커다란 원형 개구부에 의해 표정을 갖게 되며 유사한 형태의 주택, 리콜네토 주택의 입면은 스카르파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상세한 부분들에 의해 더욱 풍요로워지게 된다.

다른 모더니즘 작가의 작품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을 발전시켜 온 보타의 작업세계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보타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모더니즘의 성향은 꼬르뷔제로부터 습득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작가로의 삶을 사는 동안 쉬지 않고 형태를 추구하였던 꼬르뷔제로부터 모더니즘의 합리적 사고를 이어받은 보타가 구조기술적 표현에 몰두하였던 미스의 영향 아래 성장한 현대 미국의 모더니즘 작가와 비교하여 보타 형태에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보타의 주택에서 실내계획의 합리성은 대부분 꼬르뷔제의 주택으로부터 취해졌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보타의 주택에는 자유롭게 변화하는 평면이나 부분적으로 높이 트인 거실, 현관과 서비스 공간만이 배치된 채 대부분이 비워진 1층 등 꼬르뷔제 주택의 설계원칙이 일관되게 보여진다. 특히 층의 용도에 따라 또는 조형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는 평면은 꼬르뷔제 주택의 평면과 같이 기능적이면서도 변화가 있는 실내를 완성하게 되는데 힘을 지탱하는 조적벽 구조의 보타 주택에서 '자유로운 평면'은 변화를 수용하기 쉬운 콘크리트 구조의 꼬르뷔제 주택에서 '자유로운 평면'과는 구별되어 평가되어야 하겠다.

형태언어와 구성방식의 차용에서 시작한 보타의 주택에서 독창성은 로지아로부터 온다. 로지아는 간결한 기하학적 볼륨을 조각하여 3차원적 깊이를 주며 조형적 형태를 갖게 하는데 정육면체나 원통형 주택에서 정면을 두 쪽으로 분할하는 로지아는 보타 주택 특유의 독특한 이미지를 성립시켰다. 디자인된 외부공간으로서의 로지아는 실내에서도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된다. 로지아에 의해 외부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는 실내를 로지아를 통해 선택된 방향으로부터의 일광과 선택된 전망을 전달받는다. 로지아는 흔히 좁고 높은 수직공간으로 의도되며 수평과 수직공간의 교차가 보여지는 실내는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타는 칸의 언어와 스카르파의 기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렇게 발전시킨 표현과 꼬르뷔제로부터 습득한 원칙을 접목시켜 외적으로는 독특한 표정으로 주변과 관계맺으며 내적으로는 기능적으로도 훌륭히 해결된 자신만의 독자적인 주택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이미 존재하는 표현과 원칙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재해석하여 새롭게 사용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주었는데 새로운 형태와 표현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작업태도야말로 형태언어와 표현기법, 구성원칙을 초월하여 그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물려받은 값진 유산이라 하겠다.

## 5. 결론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모더니즘의 합리적 접근방식을 존중한 마리오 보타는 철과 유리의 기술적 표현에 의존한 나머지 획일화한 모던 건축의 형태표현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택설계에서 그의 목표는 주변환경과 조화하여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주택을 세우는 일이다. 그는 그의 주택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변환경과 대화하기를 원했으며 랜드마크와 같이 위치를 확인해 주고 방향을 알게 하는 조형적 구조물이 되기를 원하였다.

건축형태를 보는 이와 같은 눈은 이탈리아 수학중에 만난 두 사람의 스승, 카를로 스카르파와 루이스 칸의 가르침에 의하여 뜨여졌다고 생각된다. 칸과 스카르파의 가르침을 통해 형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보타는 이들의 형태언어를 기초로 자신의 주택을 발전시켜 왔다. 외관과 입면의 관점에서 볼 때 보타 주택의 시작으

## 도면, 사진 출처

- 도면 1, 2, 4, 5, 6, 7, 8, 9, 10, 11, 12, 13 : Futagawa, Yukio Ed.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oy : A.D.A. Edita, 1984.  
도면 3, 사진 1 :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홍기 역. 서울 : 기문당, 1992.  
도면 14, 사진 2 : GA House. Vol.36.

## 참고문헌

1. Black, Peter. 『현대건축의 거장, 미스 반 데어 로에』. 윤정섭 역. 서울 : 건우사, 1989.
2. Black, Peter. 『현대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 윤정섭 역. 서울 : 건우사, 1983.
3. Blaser, Werner. 『미스 반 데어 로에』. 송준식 역. 서울 : 대우출판사, 1983.
4. Boesiger, W. and Stonorow, O. ed. 『Le Corbusier』, 8 Vols. 르 꼬르뷔제 부지에 작품연구회 편역. 서울 : 집문사, 1991.
5. Dal Co, Francesco. 『Mario Botta』. 김홍기 역. 서울 : 기문당, 1992.
6. Futagawa, Yukio Ed. 『GA Architect 3, Mario Botta』. Tokoy : A.D.A. Edita, 1984.
7. 『Architectural Monographs 8, Mies Van der Rohe』. 이민 역. 서울 : 공간도서, 1989.
8. 『A+U, Carlo Scarpa』. 장성수 역. 서울 : 테림문화사, 1988.
9. 『A+U, Louis I. Kahn』. 이강훈 역. 서울 : 도서출판 갑을, 1985.
10. 『A+U, Mario Botta』. 편집부 편역. 서울 : 집문사, 1997.
11. 건축과 환경. 3월호, 1997.
12. 인테리어. 4월호, 1997.
13. GA House. Vol.3, Vol.6, Vol.10, Vol.13, Vol.15, Vol.24, Vol.30, Vol.34, Vol.36.

〈접수 : 1998. 10. 31〉